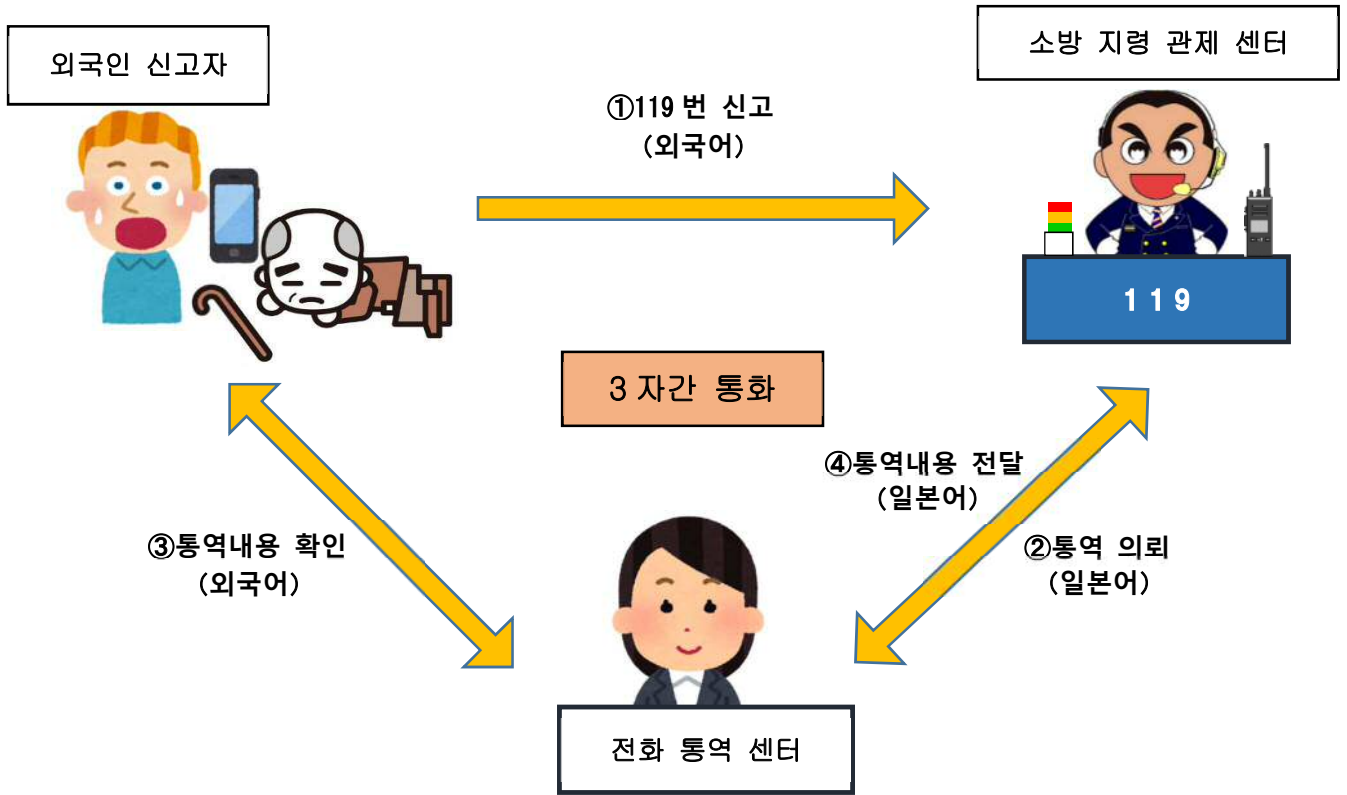


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을 위한 신고 시스템

외국어로 119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나, 일본어로 대화가 어려운 재해 현장에서,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, 전화 통역 센터를 통한 동시 통역 시스템의 운용을 시작했습니다.

119 번 신고시



현장 대응시

